

27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배우나 생각하지 않으면 공허하고,
생각하나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

-공자

국어 영역

[1 ~ 3] 다음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시한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다목적 강당 신축에 대해 심의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다목적 강당 신축 예정지는 학교 본관 동쪽으로, 강당은 운동장 일부와 그 주변 공간을 할애해 지어질 것이라고 하며, 각종 행사 진행이 가능한 공간 겸 실내 체육관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다목적 강당을 신축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1: 다목적 강당 신축은 꼭 필요합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던 날 체육 시간을 떠올려 보면 학생들은 그 필요성을 절감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육 활동이 필요한데, 다목적 강당이 있다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 강당은 이렇다 할 체육 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가 잦아지면 학교의 이미지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학생 2: 저는 다목적 강당 신축에 반대합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강당을 신축하는 데에는 최소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공사는 주로 낮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음이나 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강당이 신축된다면 학생들은 소중한 공간 하나를 잃게 됩니다. 그곳에는 학생들이 정성껏 가꾸어 온 화단과 야외 휴식 공간인 정자가 있는데 그 공간은 학생들에게 쉼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78%가 이 쉼터를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회자: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양측의 반론을 들겠습니다.

학생 3: 다목적 강당 신축으로 체육 활동에 날씨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강당을 신축하면 학교 운동장의 적지 않은 부분이 훼손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점심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다목적 강당의 신축은 오히려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측면이 더 큼니다. 또한 방과 후에 다목적 강당을 개방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교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웃 학교에서도 학교 시설 개방 이후 야간에 외부인들과 차량이 수시로 출입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 4: 물론 공사 기간 동안 학습권이 다소 침해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장소 제약으로 인해 할 수 없었던 명사 초청 강연이나 학생 발표 대회, 그리고 실내 체육 수업 등이 가능해져서 오히려 학습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휴식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쉽지만 다목적 강당을 새로운 의미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작은 음악회와 같은 문화 공연 등을 한다면 다목적 강당은 학생들의 또 다른 쉼터가 될 것입니다.

사회자: 이제 최종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측 발표자들께서는 최종 변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토론 참여자들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는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 ② ‘학생 1’은 과거 경험을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③ ‘학생 2’는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④ ‘학생 3’은 관련 사례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학생 4’는 주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언급하며 주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다음 자료를 위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에서 실시한 ‘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선호하는 체육 시설은 학교 체육 시설, 공공 체육 시설, 민간·상업 체육 시설 등의 순이었다. 특히 시민들은 학교 체육 시설을 이용한다면, 자녀와 함께 운동을 하기 위해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시설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학교 시설 개방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학교에 있어 그에 따른 부담 때문에 실제로 학교 체육 시설을 개방하는 곳은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 ① 학교 시설 개방의 책임 주체에 주목하여, 학생들의 야외 휴식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반대 측 주장을 강화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② 학교 시설 개방의 전제 조건에 주목하여, 학교의 기본 목적은 학생 교육에 있다는 찬성 측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③ 학교 시설 관리의 책임 주체에 주목하여, 강당 개방이 학교 시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④ 시민들의 체육 시설에 대한 선호도에 주목하여, 학교가 지역 사회 주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찬성 측 주장을 강화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⑤ 시민들의 학교 체육 시설 이용 선호 시간대에 주목하여, 강당 개방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찬성 측 주장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국어 영역

3. 위 토론에서 양측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교와 지역 사회 간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 ②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③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시설을 재정비해야 한다.
- ④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 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
- ⑤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4 ~ 5] 다음은 동아리 회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1: 오늘은 학교 축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벌써 다음 달이 축제인데, 아무런 준비를 못 했잖아. ㉠ 이번엔 우리 도서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학생 2: 맞아. 작년엔 친구들이 함께하기 어려운 주제를 선정해서 호응이 적었잖아. 이번엔 흥미로운 주제를 잡아 제대로 준비해 보자. 뭐가 좋을까?

학생 3: 음……. 얼마 전 TV에서 책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우리 선조들이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거였어. 지금과 다르게 수작업으로 정성껏 책을 만드는 모습이 신기하더라구. ㉡ 그래서 말인데 이번 기회에 친구들에게 옛날 책을 소개해 보면 어떨까?

학생 1: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이번 축제에는 옛날 책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면 좋을 것 같아.

학생 2: 나도 좋아. 그러면 옛날 책을 직접 구해서 전시해 보자.

학생 3: ㉢ 근데 옛날 책은 아무래도 구하기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옛날 책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사진 자료를 함께 전시해 보면 어때?

학생 1: 그거 좋네. 그런데, 전시만 하는 것은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 뭔가 친구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체험 같은 것 말이야.

학생 2: 그럼. 전시회 한쪽에서 옛날 방식으로 책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코너를 진행해 보는 것은 어때?

학생 3: 옛날 책 만들기 체험?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

학생 1: 나도 적극 찬성! ㉣ 그러면 이번 축제에는 옛날 책 만드는 방법을 사진과 함께 전시하고 직접 만드는 체험 코너도 마련해 보자. 그런데 옛날 책에 대해 공부도 하고,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은데?

학생 2: ㉤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도서관에도 가 보면 참고 자료가 있을 거야.

학생 3: 음……. 아까 말했던 TV 프로그램에서 ‘고서 박물관’이라는 곳도 나오던데. 어디, 한번 검색해 볼까?

학생 1: 그래, 찾아보자.

학생 3: (인터넷을 검색한 후) 여기 있다. 이것 좀 봐.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하면 고서 전문가가 전시물에 대해 직접 안내도 해 준다고 하네.

학생 2: 정말? 우리한테 딱 필요한 곳이네. 함께 찾아가 보자. 궁금한 점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1: 응. 좋은 생각이네. 이번 주말에 찾아가 보자.

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회의 참여자들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 회의 참여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도출된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 회의 참여자들에게 해결 방법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 다음은 동아리 회의 이후에 전문가와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이다.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 생: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전 예약하고 전화로 연락드렸던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전문가: 네, 반갑습니다. 찾아오기 힘들지 않았나요?

학 생: (웃으며) 네, 홈페이지에 약도가 잘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았어요.

전문가: 우리 선조들의 책을 전시하고 책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구요? 좋은 생각이네요.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일 방법이라고 봅니다.

학 생: 네, 옛날 책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도 여쭙고 조언도 듣고자 찾아 왔습니다.

전문가: 그럼, 궁금한 점부터 해결하고 박물관을 관람해 볼까요?

학 생: 네, 좋아요. 그런데 옛날 책 제작 방법 중에서 친구들에게 소개할 만한 방식이 있을까요?

전문가: 음……. ‘선장’이라는 방식을 추천하고 싶네요. 조선 시대에 대체로 책을 만들던 방식이죠.

학 생: 선장이요? 어떤 방식인가요?

전문가: 선장은 종이들을 끈으로 꿰매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림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를 볼까요? 속지들은 반으로 접고 모은 뒤, 우측에 구멍을 뚫고 끈으로 고정시킵니다. 표지에는 문양을 새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표지와 속지를 끈으로 튼튼하게 꿰매는 겁니다.

학 생: 선생님, 표지의 문양은 어떻게 새기나요?

전문가: 네, (나무판 실물을 보여주며) 그림을 새긴 나무판에 밀랍을 바르고 이것을 표지에 대고 꺾 눌러주어 문양을 새기죠.

학 생: 그런데 밀랍을 바르는 이유가 있나요?

전문가: 네, 밀랍을 바르면 종이가 밀리지도 않고 무너도 더 선명하게 찍히기 때문입니다.

학 생: 아, 그렇군요. 학생들이 만들기에도 어렵지 않겠죠?

전문가: 그럼요. 그럼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더 설명해 줄게요.

학생들: 네, 선생님.

- ① 학생은 전문가의 의견에 호응하면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 ② 학생은 전문가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던져 화제와 관련한 정보를 듣고 있다.
- ③ 전문가는 화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전문가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제를 유추의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전문가는 학생들이 계획한 활동을 확인하며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국어 영역

[6~8] 다음은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청소년 신문에 기고할 목적으로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감정노동자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사람으로, 판매나 상담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 감정노동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는 뉴스 진행자의 말을 듣고 그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감정노동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은 고객들이 감정노동자를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라고만 인식하여 그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비스업계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기업은 고객에 대한 무조건적인 친절만을 강요할 뿐, 감정노동자들의 고통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는 소홀하다. 또한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감정노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감정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감정노동의 고충을 이해하고, 감정노동자들을 해당 서비스의 전문가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기업은 감정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감정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감정노동자가 겪는 문제는 단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이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감정노동자들의 문제를 방지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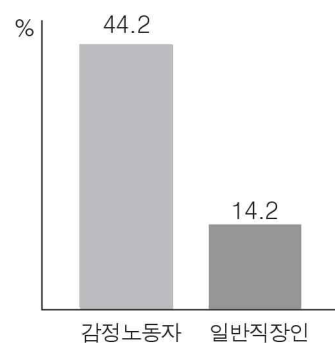
6. 학생의 초고에서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용을 통해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각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대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대조의 방법을 활용한다.
- ④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소한 개념에 대한 예를 들고 있다.
- ⑤ 예상 독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7. 다음은 초고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여 초고를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감정노동자 관련 통계 자료

1. 스트레스성 질병 발생 비율



2. 고객 응대 시 스트레스 요인



(나) 인터뷰

저희 회사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폭언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부당한 행위에 직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율 헬스클럽, 정신 건강 상담실’ 등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했으며,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할 때 고객 평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재작년 18.9%에 달하던 이직률이 올해에는 2.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 ○○회사 대표이사

(다) 신문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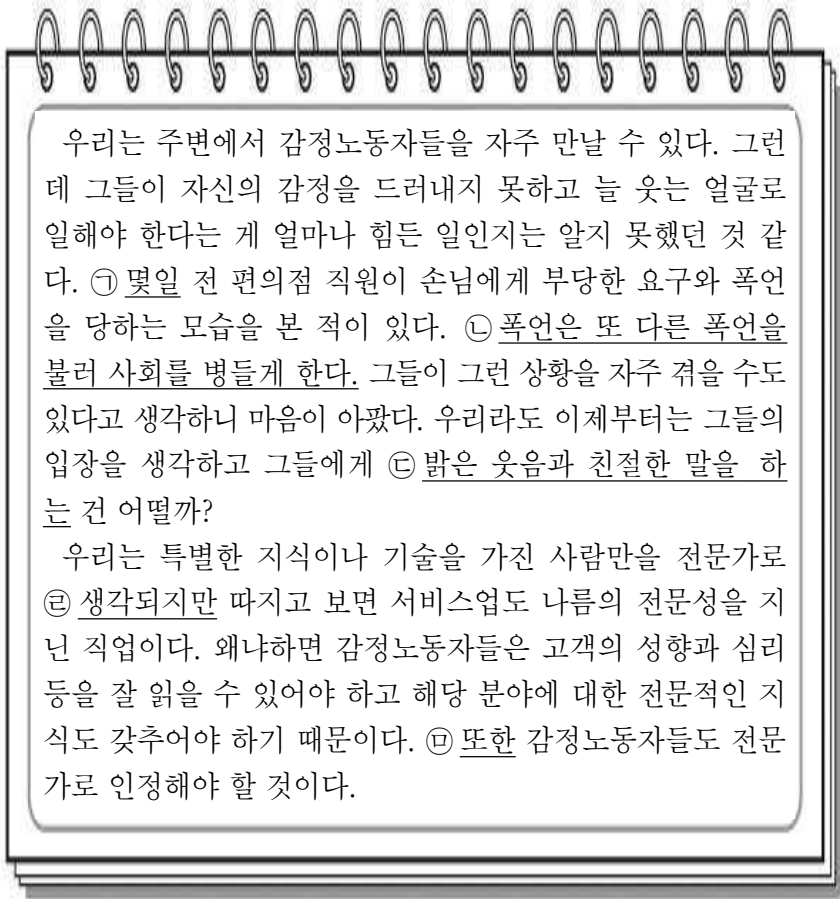
최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마련할 목적으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특히 고객의 폭언과 폭행, 인격 무시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면 소비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신문

- ① (가)-1을 활용하여 첫째 단락에서 언급한, 감정노동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의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한다.
- ② (가)-2와 (나)를 활용하여, 감정노동자에 대한 고객들의 폭언도 감정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임을 둘째 단락에 추가한다.
- ③ (나)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서 언급한, 감정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 ④ (다)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서 언급한,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노동자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면 이직률을 줄일 수 있음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국어 영역

8.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교내 누리집에 올리기 위해 쓴 글이다. 이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어문 규범에 맞지 않으므로 ‘며칠’로 고친다.
② ㉡은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앞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③ ㉢은 호응을 고려하여 ‘밝은 웃음을 짓고 친절한 말을 건네는’으로 바꾼다.
④ ㉣은 어법에 맞도록 ‘생각하지만’으로 고친다.
⑤ ㉤은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그러므로’로 바꾼다.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업 상황]

노인 생애 체험에 참가한 학생에게 선생님께서 작문 과제를 부여하셨다.

작문 과제 1

○ 노인 생애 체험 참여를 권유하는 짧은 글을 써 보자.

작문 과제 2

㉠ ~ ㉤을 고려하여 노인 생애 체험에 참가한 소감을 한 편의 글로 작성해 보자.

㉠ 노인 생애 체험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 체험 중 가장 관심이 있었던 내용을 제시할 것. ㉢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제시하며, ㉣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끝맺고, ㉤ 노인 생애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에 따라 글을 전개할 것.

9. <보기>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문 과제 1]을 수행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노인은 풍부한 연륜을 지닌 삶의 스승이라는 점과, 세대 간 이해를 위한 노인 생애 체험의 필요성을 모두 언급할 것.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어르신은 우리 인생길을 알려주는 귀중한 지도입니다. 그 지도는 여러분의 삶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② 우리 사회에서 노인 분들은 지식과 문화를 전승해 주시는 분입니다. 노인 생애 체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③ 혹시 의미 없는 생활로 바쁘신가요? 의미 있는 삶을 찾고 싶으시면 어르신에게 눈을 돌려 보세요. 노인 생애 체험은 당신의 마음을 열 것입니다.
④ 어르신의 지나온 세월은 나무의 나이테같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경험을 들려줍니다. 노인 생애 체험으로 가까워지는 세대 간의 정을 느껴 보세요.
⑤ 여러분이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팡이가 되어 보시는 건 어때요? 노인 생애 체험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당신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10. 다음은 [작문 과제 2]를 수행한 글이다. ㉠ ~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우리 할머니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 드려도 잘 못 들어서서 안타까웠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노인 생애 체험을 안내해 주셔서 이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체험에 대한 사전 강의, 노화 체험, 그리고 체험 나누기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참가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청각 노화 체험이다. 이 체험은 소리를 막는 헤드폰을 쓴 후 친구와 서로 말해 보는 활동이다. 친구가 큰 소리로 말해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강사님께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입모양을 분명히 하면서 천천히 말해 보라고 하셨다. 그러자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할머니와 대화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체험 전 사전 강의를 통해 어르신들과의 대화가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알았다. 나이가 들면 대뇌의 움직임이 젊을 때보다 활발하지 않아 소리가 들려도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체험 후에는 자신이 새롭게 안 사실과 체험 후 느낀 점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노인 생애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 사소한 일이지만 어르신에게는 힘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진정성 있는 보살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국어 영역

11.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표준발음법]

제18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ㄴ, ㅈ, ㅊ, ㅌ, ㅎ), ㄴ(ㄷ, ㄹ, ㄹ, ㅁ)’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제23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ㄴ, ㅈ, ㅊ, ㅌ, ㅎ), ㄴ(ㄷ, ㄹ, ㄹ, ㅁ)’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ㄴ,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① ‘앞마당’은 18항이 적용되어 [암마당]으로 발음된다.
- ② ‘늦가을’은 23항이 적용되어 [느까을]로 발음된다.
- ③ ‘꽃망울’은 18항과 23항이 모두 적용되어 [꼰망울]로 발음된다.
- ④ ‘맛먹다’는 18항과 23항이 모두 적용되어 [만먹따]로 발음된다.
- ⑤ ‘홀낚시’는 18항과 23항이 모두 적용되어 [혼낙씨]로 발음된다.

13. <보기>에 제시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지난 시간에 부사화 접미사 ‘-이’와 ‘-히’의 표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한글맞춤법 51항의 해설을 통해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의 어간이나 ‘ㅅ’받침 뒤에서는 ‘-이’로 적는다고 배웠는데, 여기에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더 제시되어 있습니다.

㉠ (첩어 또는 준첩어인) 명사 뒤
예) 살살이, 다달이

㉡ 부사 뒤
예) 더욱이, 히죽이

㉢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예) 가벼이, 새로이

판서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의 단어들을 ㉠ ~ ㉢로 구분해 봅시다.

나날이, 오뚝이, 일찍이, 즐거이, 겹겹이

- | | | |
|------------|----------|----------|
| ㉠ | ㉡ | ㉢ |
| ① 나날이, 오뚝이 | 일찍이 | 즐거이, 겹겹이 |
| ② 나날이, 즐거이 | 겹겹이 | 오뚝이, 일찍이 |
| ③ 나날이, 겹겹이 | 오뚝이, 일찍이 | 즐거이 |
| ④ 오뚝이, 겹겹이 | 일찍이, 즐거이 | 나날이 |
| ⑤ 겹겹이 | 오뚝이, 즐거이 | 나날이, 일찍이 |

12. ㉠ ~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원래 문장	표현하려는 의미	수정한 문장
현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다.	옷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고자 함.	㉠
영철이는 지수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	영철이가 더 좋아하는 것은 지수가 아니라 야구 경기임.	㉡
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친구들이 일부만 참석함.	㉢
민수는 아침에 윤서가 여행에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돌아온 사실을 말한 시점이 아침임.	㉣
그는 내게 장미와 튤립 두 송이를 주었다.	받은 꽃의 개수가 세 송이임.	㉤

- ① ㉠: 현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는 중이다.
- ② ㉡: 영철이는 지수를 좋아하는 것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
- ③ ㉢: 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다는 나오지 않았다.
- ④ ㉣: 윤서가 아침에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민수는 말했다.
- ⑤ ㉤: 그는 내게 장미 한 송이와 튤립 두 송이를 주었다.

국어 영역

14.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주다

㉠ 동사

① 【...에/에게 ...을】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 친구에게 선물을 주다.
반의어 주다 ↔ ㉠ ㉢

② 남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 점수 따위를 가지게 하다.
㉡ 일등 항해사에게 가산점을 주다. / ㉢

③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하다. ㉡ 동생과 싸웠다고 어머니가 나에게 핀잔을 주다. / ㉢

받다

㉡ 동사

① 【...에서/에게서/...으로부터 ...을】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 ㉡ 남자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다.

② 【...을】 공중에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자기 쪽으로 향해 오는 것을 잡다. ㉡ 날아오는 공을 받다.
반의어 받다 ↔ ㉢

③ 【㉢】 흐르거나 쏟아지거나 하는 것을 그릇 따위에 담기게 하다. ㉡ 딱끈한 차를 찻잔에 받다.

- ① ‘주다㉠㉠’의 뜻풀이와 용례로 보아 ㉠에 들어갈 말은 ‘받다㉠㉠’이다.
- ② ㉢에는 ‘약을 사 먹으라고 누나가 나에게 돈을 주다.’를 넣을 수 있다.
- ③ ㉢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다.’를 넣을 수 있다.
- ④ ‘받다㉡㉡’의 용례로 보아 ㉢에는 ‘던지다’를 넣을 수 있다.
- ⑤ ㉢에 들어갈 말은 ‘...을 ...에’이다.

15.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지칭어와 호칭어, 높임 표현이 발달한 우리말에서는 특히 담화 상황에서 화자, 청자,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그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인 지칭어와 그 대상을 직접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인 호칭어를, 화자와 청자, 담화에 언급된 대상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또한 높임 표현은 청자나 담화 속 주체와 객체의 높임 관계를 고려하여 어미, 조사, 어휘 등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보기 2>

혜연: 삼촌, 어서 오세요. 좀 늦으셨네요?
삼촌: 생각보다 차가 밀리더구나. 다들 오셨니?
혜연: 아니요. 차가 밀리는지 ㉠ 할머니께서도 아직 도착하지 못 하셨어요.
삼촌: ㉡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혜연: ㉢ 할아버지를 모시고 조금 전에 결혼식장에 들어가셨어요.
삼촌: 아침부터 너희 ㉣ 어머니께서 많이 바쁘셨겠네. 너도 언니 결혼식 때문에 옆에서 이것저것 도와주느라 힘들었지?
혜연: 아니에요. 그것보다 삼촌께서 이렇게 멀리서 와 주셔서 ㉤ 언니가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 ① ㉠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하여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군.
- ② ㉡에서 문장의 주체는 화자가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특수한 어휘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군.
- ③ ㉢에서 문장의 객체는 화자가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조사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군.
- ④ ㉣에서는 화자가 청자를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하여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군.
- ⑤ ㉤에서는 청자가 화자보다 높은 대상이므로 종결어미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군.

16. <보기>의 ㉠~㉣에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雙鵬(쌍조) ㉡ 혼 사래 ㉢ 빼니 絶世(절세) 英才(영재)를 邊人(변인)이 拜伏(배복) ㉣ 호사보니
[현대어 풀이]
두 마리 독수리가 한 살에 웨이니, 절세의 영재를 변방의 사람들이 절하며 복종하니

雙鵲(쌍작)이 혼 ㉤ 사래 ㉥ 디니 曠世(광세) 奇事(기사)를 北人(북인)이 稱頌(칭송) 호사보니
[현대어 풀이]
두 마리 까치가 한 살에 떨어지니, 세상에 없는 기이한 일을 북녘 사람들이 칭송하니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23장> -

- ① ㉠을 보니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로 ‘ㅣ’가 사용되었군.
- ② ㉡을 보니 음절의 초성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사용되었군.
- ③ ㉢을 보니 ‘△’, ‘ㅍ’, ‘.’ 등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문자가 사용되었군.
- ④ ㉤에서 양성 모음 ‘ㅏ’와 ‘ㅑ’가 어울리는 것을 보니 모음조화가 지켜졌군.
- ⑤ ㉥에서 ‘ㅣ’ 앞의 ‘ㄷ’이 ‘ㅈ’으로 변하지 않은 것을 보니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군.

5 4 2 3 4 3 5 2 4 5 해설 3 4 3 2 3 1

1. [출제의도] 토론 전략 이해하기

‘학생 4’는 장소의 제약으로 할 수 없었던 강연이나 실내 체육 수업이 가능해지고 문화 공연 등을 통해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등의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용어의 개념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사회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다목적 강당 신축 심의에 앞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을 언급하며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1’은 눈이나 비가 내리던 날의 체육수업에 대한 과거 경험을 떠올려 보게 하며 강당 신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2’는 강당 신축 예정지인 야외 휴식 공간을 다수의 학생들이 사랑하고 있음을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3’은 강당 신축 후 학교 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기

<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육 시설은 학교 체육 시설임을 알 수 있다. 다목적 강당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생활 체육 활동의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찬성 측의 논거로 활용한다면 찬성 측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자료>를 통해 학교 개방의 책임 주체가 학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반대 측 학생들은 다목적 강당이 신축되면 학생들의 쉼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강당 신축을 반대하고 있기에 이를 학교 시설 개방의 책임 주체와 관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자료>를 통해 학교 시설 개방의 전제 조건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임을 알 수 있다. 찬성 측은 학교의 기본 목적이 학생 교육에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학교 시설 개방의 전제 조건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자료>를 통해 학교 시설 관리의 책임 주체가 학교임을 알 수 있다. 반대 측은 다목적 강당 개방이 학교 시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학교 시설 관리의 책임 주체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선호 시간대는 저녁이나 주말임을 알 수 있다. 찬성 측은 다목적 강당을 명사 초청 강연이나 실내 체육 수업의 장소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기회가 확대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학교를 개방해 학생들의 학습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3. [양측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 이해하기]

찬성 측은 다목적 강당 신축으로 날씨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있고, 반대 측은 다목적 강당 신축으로 운동장 일부가 훼손되어 학생들의 체육 활동 공간이 축소될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양측 모두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학교와 지역 사회 간의 교류 확대를 말한 것은 찬성 측만이다. ③ 다목적 강당 개방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를 언급한 것은 반대 측만이다. 또한 양측 모두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시설의 재정비를 언급하지 않았다. ④ 다목적 강당 신축으로 새로운 문화 공간이 생길 수 있음을 말한 것은 찬성 측만이다. ⑤ 양측 모두,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동의를 필요함을 말하지 않았다.

4. [출제의도] 의사소통 전략 파악하기

㉡에서 ‘학생 3’은 옛날 책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① 축제 때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옛날 책을 소개해 보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옛날 책을 만드는 방법을 사진과 함께 전시하고 직접 만드는 체험 코너도 마련해 보자는 이전까지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도서관에도 가 보자며 참여자들에게 해결 방법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5. [출제의도] 대화의 의사소통 방식 파악하기

전문가는 ‘선장’이라는 방식의 설명, 문양을 새기는 방법에 대한 답변에서 과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유추의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은 ‘네, 좋아요.’, ‘아, 그렇군요.’ 등의 말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에 호응하면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학생은 ‘선장이요? 어떤 방식인가요?’, ‘선생님, 표지의 문양은 어떻게 새기나요?’, ‘그런데 밀랍을 바르는 이유가 있나요?’ 등과 같이 전문가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던져 화제와 관련된 정보를 듣고 있다. ③ 전문가는 ‘선장’이라는 화제와 관련된 ‘그림 자료’와 ‘나무판 실물’을 보여주면서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⑤ 전문가는 ‘우리 선조들의 책을 전시하고 책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가요? 좋은 생각이에요.’와 같이 학생들이 계획한 활동을 확인하며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초고를 읽고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초고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감정노동자’인데, 감정노동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대조의 방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① 첫째 단락에서 ‘우리나라 감정노동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는 뉴스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② 둘째 단락에서 감정노동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원인을 소비자, 기업, 정부 측면으로 분석하였으며, 셋째 단락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각각 소비자, 기업, 정부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첫째 단락에서 ‘감정노동자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감정노동자’라는 생소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의 예로 ‘판매나 상담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예를 들고 있다. ⑤ 넷째 단락에서 ‘특히 이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다.’, ‘사회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예상 독자인 청소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감정노동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 수정하기

(다)의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은 ‘고객의 폭언과 폭행, 인격 무시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이고, (나)의 직원들의 업무 능력 평가 기준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체 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노동자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1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성 질병 발생 비율이 일반직장인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온 통계 자료이므로 ‘감정노동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의 구체적인 근거’로 적절하다. ② (가)-2는 감정노동자의 고객 응대 시 스트레스 요인으로 ‘무시·폭언’이 40.1%를 차지한다는 자료이고, (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폭언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인터뷰이다. 그런데 초고의 둘째 단락에는 감정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가)-2와 인터뷰의 내용을 통해 고객의 폭언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고객들의 폭언도 감정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임을 둘째 단락에 추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나)에는 ‘자율 헬스클럽, 정신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였다고 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감정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다)의 ‘고객의 폭언과 폭행, 인격 무시 등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은 근로기준법의 개정 방향이므로 (다)를 활용하여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8. [출제의도] 교쳐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은 편의점 직원이 손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는 내용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앞 문장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삭제해야 한다.

① ㉠ ‘몇일’은 어문 규범에 맞지 않게 쓴 것이므로 ‘며칠’로 고쳐야 한다. ③ ㉡의 ‘웃음’과 ‘말’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각각 필요하므로 ‘밝은 웃음을 짓고 친절한 말을 건네는’으로 바뀌어야 한다. ④ ㉢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만을 전문가로’ 생각하는 주체가 ‘우리는’이므로 피동형인 ‘생각되지만’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생각하지만’으로 고쳐야 한다. ⑤ ㉣은 감정노동자가 전문가인 이유가 제시된 문장과 감정노동자를 전문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장을 연결해야 하므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러므로’로 바뀌어야 한다.

9.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하기

‘어르신의 지나온 세월은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경험을 들려줍니다.’에서는 비유법과 노인은 풍부한 연륜을 지닌 삶의 스승이라는 점을, ‘노인 생애 체험으로 가까워지는 세대 간의 정을 느껴보세요.’에서는 세대 간 이해를 위한 노인 생애 체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인 생애 체험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노인 생애 체험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② 비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노인은 풍부한 연륜을 지닌 삶의 스승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⑤ 노인은 풍부한 연륜을 지닌 삶의 스승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 [출제의도] 작문 계획에 따른 글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프로그램의 순서는 사전 강의, 노화 체험, 체험 나누기이다. 하지만 ‘작문 과제 2’를 수행한 글에서는 노인 생애 체험 활동에 참가하게 된 동기(1문단), 체험 중 가장 관심이 있었던 내용 제시(2문단), 체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3문단),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4문단)의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생애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에 따라 글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① 1문단의 ‘우리 할머니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 드려도 잘 못 들어서서 안타까웠’던 나에게 ‘선생님께서 노인 생애 체험을 안내해 주’셨다는 내용으로 보아 참가 동기를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참가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청각 노화 체험’이라는 내용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의 ‘할머니와 대화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었다.’는 내용과 3문단의 ‘사전 강의를 통해 어르신들과의 대화가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알았다.’는 내용으로 보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우리에게는 사소한 일이지만 어르신에게는 힘든 일이 많다’는 것과 ‘어르신들에게 진정성 있는 보살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끝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표준발음법 규정 이해하기

‘꽃망울’은 받침 ‘ㄷ’이 ‘ㄱ’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어 [꼐망울]로 발음된다. 따라서 18항이 적용되었다는 진술은 타당하나, 23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① ‘앞마당’은 받침 ‘ㅍ’이 ‘ㄱ’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어 [암마당]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18항이 적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늦가을’은 받침 ‘ㅈ’ 뒤에 연결되는 ‘ㄱ’이 [ㄱ]으로 발음되므로 23항이 적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맞먹다’는 받침 ‘ㅈ’이 ‘ㄱ’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며,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ㄷ’이 [ㄷ]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18항과 23항이 모두 적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홀낚시’는 받침 ‘ㅌ’이 ‘ㄴ’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며,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ㅅ’이 [ㅅ]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18항과 23항이 모두 적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중의적 문장 수정하기

‘윤서가 아침에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민수는 말했다.’는 문장의 의미는 ‘윤서가 여행에서 돌아온’ 시점이 ‘아침’이라는 것으로, ‘돌아온 사실을 말한 시점이 아침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민수는 윤서가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침에 말했다.’고 수정해야 한다.

① ‘현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다.’는 문장은 ‘입은 상태의 지속’의 의미도 포함하므로, 옷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임만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현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는 중이다.’라고 진술해야 한다. ② ‘영철이는 지수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는 문장은 ‘지수도 야구 경기를 좋아하지만, 영철이가 더 좋아함.’의 의미 또한 포함하므로, ‘영철이가 더 좋아하는 것은 야구 경기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영철이는 지수를 좋아하는 것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고 진술해야 한다. ③ ‘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다 나오지 않았다.’는 문장은 ‘모두 나오지 않음.’의 의미 또한 포함하므로, ‘친구들이 일부만 참석함’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다는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해야 한다. ⑤ ‘그는 내게 장미와 튤립 두 송이를 주었다.’는 문장은 ‘장미 한 송이와 튤립 두 송이’를 주었다.’의 의미와 ‘장미 두 송이와 튤립 두 송이’의 의미 또한 포함하므로, ‘받은 꽃의 개수가 세 송이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는 내게 장미 한 송이와 튤립 두 송이를 주었다.’고 진술해야 한다.

13. [출제의도] 한글맞춤법 규정 이해하기

‘나날’은 준접어, ‘겹겹’은 접어이기 때문에 ㉠에 해당한다. 또한 ‘오펙’과 ‘일찍’은 부사이므로 ㉡에 해당하고, ‘즐겁-’은 ‘ㅂ’불규칙 용언의 어간이기 때문에 ㉢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사전 활용하기

‘약을 사 먹으라고 누나가 나에게 돈을 주다.’의 ‘주다’는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의 의미인 ‘주다㉠①’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주다㉠①’은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반의어는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의 의미인 ‘받다㉠①’이다. ③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다.’의 ‘주다’는 ‘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하다.’의 의미인 ‘주다㉠③’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용례이다. ④ ‘받다㉠②’의 용례는 ‘날아오는 공을 받다.’의 의미이므로 반의어로 ‘던지다’를 넣을 수 있다. ⑤ ‘받다㉠③’의 용례는 ‘따끈한 차를 찻잔에 받다.’이므로 ㉡에 들어갈 내용은 ‘...을 ...에’임을 알 수 있다.

15. [출제의도] 표준화법 적용하기

㉡에서 문장의 객체인 ‘할아버지’에 대해 ‘모시고’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조사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화자인 ‘혜연’이 자신을 기준으로 대상인 ‘할머니’를 파악하여 지칭어인 ‘할머니’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서 문장의 주체인 ‘어머니’는 화자인 ‘삼촌’이 높여야할 대상이므로 특수한 어휘 ‘계시다(계시니)’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화자인 ‘삼촌’이 청자인 ‘혜연’을 기준으로 대상인 ‘어머니’를 파악하여 지칭어인 ‘어머니’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청자인 ‘삼촌’이 화자인 ‘혜연’보다 높은 대상이므로 종결어미 ‘-아요’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6. [출제의도] 중세국어의 특징 파악하기

중세국어에서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 자리에 위치한 체언의 모음의 종류와 종성의 유무에 따라 ‘을/를, 을/를’이 사용되었다. ㉠은 문장의 주어이고 주격조사 ‘ㅣ’가 사용되었으므로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의 ‘빼니’에서 ‘ㅅ’는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음절의 초성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의 ‘△’, ‘ㅅ’, ‘.’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④ 모음조화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ㅏ’와 ‘ㅗ’는 양성 모음이므로 ㉡은 모음조화가 지켜졌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구개음화는 ‘ㄷ, ㅌ’이 ‘ㅣ’와 만나서 ‘ㅌ, ㅊ’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므로 ㉡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